

SKT, 8만원대 5G 데이터 무제한... '최고속도'로 승부

'5G 론칭' 요금제 4종 출시

요금제 한시적 적용 후 업데이트 2.7Gbps 속도로 초고용량 서비스 '카트라이더VR'·'해리포터AR' 등 킬러서비스·콘텐츠 8000개 준비

SK텔레콤이 '초(超) 5G' 기치를 내걸고 5G 요금제와 주력 서비스, 네트워크 현황 등을 공개하며, 5G 상용화에 나섰다. SK텔레콤은 3일 '5G 론칭 쇼케이스'를 열고,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마련한 '5GX 요금제'는 총 4종이다. 우선 일반형 요금제인 '슬림'은 월 5만5000원(이하 부가세 포함)에 8GB(소진 후 1Mbps 속도제어) 데이터, 실속형 무제한 요금제인 '5GX 스탠다드'는 7만5000원에 150GB, 5Mbps 속도제어 무제한데이터, 5G 핵심 혜택 등을 제공한다.

완전무제한 요금제인 '5GX프라임', '5GX플래티넘'은 프로모션을 통해 6월 말까지 가입 시 각각 월 8만9000원, 12만5000원에 한도 없는 데이터를 연말까지 제공하고, 매월 프리미엄 혜택을 준다. 프로모션 미 적용시 가격은 각각 월 9만5000원에 200GB, 월 12만5000원에 300GB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무제한 고객의 사용 패



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로비에서 열린 '5GX 서비스 론칭쇼'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김연아 등 홍보대사들이 세계 최초 5GX 상용화 선포 세레모니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턴을 분석해 추후 요금제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 커버리지, 단말 확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그먼트·중저가 등 요금제 구성 확대를 가능한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K텔레콤 5G는 VR스트리밍·초고화질(UHD) 영화 감상 등 초고용량 서비스에서는 순간적으로 국내 최고속 2.7기가비피에스(Gbps)로 높여주는 '5GX 터보 모드'로, 스마트팩토리나 자율주행차 등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서비스에서는 5G 반응속도를 최

대치로 올리는 '5GX 초저지연 모드'로 전환된다.

SK텔레콤의 기지국 수는 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국내 최다 수준인 약 3만 4000개다. 주요 커버리지는 서울, 6대 광역시 등 전국 85개 도시의 핵심 지역과 대학가, KTX, 대형경기장, 고속도로, 수도권 지하철 노선, 해수욕장 등 데이터 사용이 많은 지역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전국 120여개 백화점, 쇼핑몰, 공항을 비롯 '건물 내부'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SK텔레콤 5GX 요금제>

요금제명	가격 (선택약정 적용)	데이터
5GX 플래티넘	125,000원 (93,750원)	완전 무제한
5GX 프라임	89,000원** (66,750원)	
5GX 스탠다드	75,000원 (56,250원)	150GB +5Mbps
슬림	55,000원 (41,250원)	8GB +1Mbps

* 6월30일까지 가입 시 12월31일까지 제공
**24개월간 6천원 할인(95,000→89,000원)

'인빌딩 토탈 솔루션'은 건물 안에서도 4개 스마트폰 안테나를 동시에 활용한다.

5G 시대를 대비할 킬러 서비스와 콘텐츠도 약 8000여개를 준비했다. 게임 영역에서 SK텔레콤은 라이엇게임즈와 제휴를 통해 e스포츠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를 가상·증강현실(VR·AR) 버전으로 만들어 상반기 중 독점 중계한다.

SK텔레콤은 해치와 제휴를 통해 SK텔레콤 5G 고객에게만 스트리밍 게임 콘텐츠 5종 이상을 독점 제공한다. 넥슨과 제휴해 '카트라이더VR'을 상반기 중 서비스하기도 한다.

AR 영역에서는 '포켓몬고'로 유명한

나이언틱과 독점 제휴를 통해 '해리포터 AR'을 상반기 오픈한다. 매직리프와 함께 AR서비스도 곧 선보일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데이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데이터 다이어트 기술 및 제로레이팅 확대에도 나선다. 우선 옥수수 '5GX관'에 있는 VR, 초고화질 영상을 데이터 차감 없이 제공하는 '제로 레이팅' 정책을 6월 말까지 적용한다.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이나 VR게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5GB까지 무료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5G 론칭 쇼케이스에서 세계 최초 5G 가입자 겸 홍보대사로 아이돌 그룹 엑소, 윌드스타 김연아 선수, 이상혁(페이커) 선수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야날로그(1G) 통신 시대인 1988년부터 31년간 SK텔레콤을 사용 중인 최장기 고객 박재원 씨와 뇌성마비를 극복한 수영선수 윤성혁 씨도 세계 최초 5G 가입자 겸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50년전 달 착륙이 인류에게 큰 도약이 된 것처럼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또한 한 번 인류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5G를 통해 우주여행을 하는 '초시대' 개막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전자

엑스뷰고·포켓포토 등 봄맞이 IT 기기 할인전

LG전자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4월을 맞아 무선 스피커, 블루투스 헤드셋, 포켓포토, 빔프로젝터 등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풍성한 선물과 알찬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이달 30일까지 LG 베스트샵, 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전자랜드 등 전국 LG전자 매장(온라인, 납품 제외)에서 LG 엑스뷰 Go(PK7·PK5·PK3), LG 포켓포토(PC389), LG 톤플러스(HBS-2000·HBS-1700·HBS-835S)를 구입한 후,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에서 제품 등록 및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LG 시네빔,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 파타고니아 토트백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내 LG 엑스뷰 Go(PK7)와 LG포켓포토(PC389)를 단품으로 구매하면 각각 스탠리 아웃도어 머그와 인화지 1매를 받을 수 있다. 또, 행사 제품을 두 가지 이상 교차해서 구매하면 최대 9만원의 할인 혜택과 무료 인화지 등이 제공된다.

생활방수기능과 긴 사용 시간으로 야외활동 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LG 엑스뷰 Go(PK5, PK7)와 LG시네빔(PK50KA·PH550)을 함께 구매하면 최대 6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유플러스, 마곡사옥에 '5G 이노베이션 랩' 개소

아이디어 있으면 오세요... 스타트업 5G개발 무대 마련

230㎡ 규모에 VR개발존 등 구성 스타트업, 기술·아이디어 신청해 협력 선정 댄 기술·컨설팅 등 지원

3일 서울 LG유플러스 마곡 사옥 방문증을 없애고 오픈한 1층 로비 '5G 이노베이션 랩'에서 내 구비된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실행하니 아이돌 스타가 눈앞에 나타나 데이트 신청을 한다. 옆에 마련된 증강현실(AR) 실내 내비게이션에서는 광각렌즈와 같은 화면으로 직접 걸어다니듯 실내를 안내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LG유플러스가 5G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약 230㎡ 규모의 5G 이노베이션 랩은 서버룸과 네트워크존, 운영지원실 및 프로젝트룸, 플랫폼존과 VR개발존 등으로 구성됐다.

서버룸에는 5G 상용 기지국 장비가 설치돼 있어 5G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하다. 네트워크존에서는 쉘드박스를 이용해 외부 전파로부터 간섭 받지 않는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으며 5G CPE(5G 무선 라우터)를 활용해 스마트폰 이외의 디바이스를 활용한 테스트 환경도 제공한다.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환경도 구축해 5G 데이터 처리, 보안 등의 테스트도 가능하다.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왼쪽에서 6번째)이 'LGU+ 5G 이노베이션 랩' 개관식에서 테이프 커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플랫폼존에서는 드론, CCTV, AR, VR, 빅데이터, 영상전송 등 LG유플러스 서비스의 연동규격과 스마트폰과 함께 HMD, AR글래스 등 출시 전 각종 디바이스까지 테스트할 수 있다. 8K 모니터와 PC용 VR 개발환경을 갖춰 따로 고가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도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퀄컴과 협력을 통해 퀄컴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테스트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룸은 아이디어 공유와 사업 논의 등을 위한 공간이다.

LG유플러스 FC전략담당 최창국 상무는 "마곡에는 사이언스파크에서 LG 계열사들의 연구·개발(R&D) 센터가 모여 있다"며 "타 계열사에 연계될 수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들고

오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팀을 통해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접속을 하지 않고 현장 방문 해도 상주하는 운영 인력을 통해 신청해도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논의를 통해 협력여부가 결정된다. 협력 프로젝트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이노베이션 랩 상주를 통한 네트워크·기술·사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 이상민 FC부부장(전무)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로비에 방문증이 없어도 누구나 오도록 마련했다"며 "외부에서 와서 장기간으로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한일간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 이동통신사업자인 KDDI와 전략적 제휴도 체결했다. KDDI는 지난해 9월부터 디지털게이트라는 이노베이션 랩을 운영, 6개월여만에 110여개의 업체에 컨설팅을 진행을 완료하고 현재 스마트팩토리분야 상품화를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는 KDDI 외에 핀란드 이동통신 회사와도 오픈 이노베이션 분야 제휴를 추가로 추진, 글로벌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경쟁력 있는 업체와 5G 핵심 기술 개발과 서비스 발굴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동을 강화하고 성공사례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우선 5G 핵심 기술을 AR, VR, AI, 빅데이터 등으로 14개 분야로 분류하고, 100여개의 핵심 기술에 대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 중이다. 또한 보유 중인 5G 핵심 기술 공유도 추진, 중소 벤처기업들의 신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FC부문에 5G O/I팀을 구성했다. 5G O/I팀은 5G 신규 기술 업체의 발굴 및 협력 확대를 위해 정기 기술 세미나와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유관 단체 및 기관의 협력을 강화한다. 기술보유 업체가 자유롭게 기술이나 사업 협력 제안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나인기자